2022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언어능력평가’ 샘플문제

※ 본 샘플문제에 대한 시험시간은 2문항 전체 3시간 기준임

- 11월입시 실제 출제시 문항수, 답안분량 등 세부사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시험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3시간 유지 예정)
- 문항당 배점은 실제 시험시 문제지에서 제시

1번 문항>

[문제] (가)의 ‘L’과 (나)의 ‘형’이 처한 상황을 요약한 후, ㉠의 관점에서 (가), (나)를 (다)와 비교하여 논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시오.(1,000자)

(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시도 쉴 수가 없다. 모두 절망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혼자이기 때문이다. (...) 만일 약삭빠른 누군가가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 힘든 노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혹은 빵 몇 조각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그는 그 방법을 숨기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는 그 방법으로 인해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서 독점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L은 자신만의 방침이 있었다. 손과 얼굴은 항상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고, 두 달에 한 번 있는 속옷 교환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보름에 한 번 직접 속옷을 빨아 입었다(아우슈비츠에서 속옷을 빤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위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샤워실에 갈 때 사용하는 나무 신발도 두 켤레나 갖고 있었다. 심지어 줄무늬 옷까지도 희한하게 그의 체형에 딱 맞았고 새것처럼 깨끗했다. L은 특권층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완벽하게 특권층의 외모를 준비해두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L이 부유해 보이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믿을 수 없는 강인함을 발휘하여 자신의 배급 빵을 지불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었고, 또 그래서 더더욱 궁핍한 기간을 견뎌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계획은 아주 긴 호흡이 필요했다. 그것은 근시안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수용소 안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놀랍다. L은 엄격한 내적 규율을 가진 채 계획을 실행했으며,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동료들은 물론 자기자신에게도 전혀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L은 존경받고 힘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특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수준이 평준화되는 수용소 같은 곳에서 존경받을 만한 외모는 실제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증수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떼거지들과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기회 있을 때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다 비난하는 어조로, 하지만 설득력 있게 게으른 동료들을 격려하고 과시하듯 열심히 일했다. 그는 배급 줄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벌이는 일상적인 싸움을 피했다. 먼저 푸는 죽이 가장 묽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도 매일 첫 번째로 배급을 받았다. 이런 그의 자제력을 블록앨테스터가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동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에고티즘(egotism)*에 걸맞게 최대한 정중하게 행동했고, 그것은 완벽했다. (...) 우둔하고 지저분한 동료들 떼거지 속에서, L이 자신이 진짜 구제되어야 하는 잠재적 특권층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에는 깔끔한 의복과 여위었지만 단정하게 면도된 얼굴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장에 전문가로 승진했고, 코만도의 기술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부나 민간 관리국에 의해 스티렌 부서 연구실의 분석가로 고용되었다. (...) 그 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죽음을 피해 단호하게, 기쁨을 모르는 지배자로서의 냉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에고티즘: 자아주의(自我主義). 자기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아의 발달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태도

프레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1958)

(나)

형은 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좀 모자란 축이었다.

해방 이듬해 삼팔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하 이기 바루 그 삼팔선이구나이 야하.”

이래놔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화를 내며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가끔 놈들의 포로로 잡혀, 놈들의 후방으로 인계되어 가다가 둘은 더럭 만났다. (...) 새하얀 가을날 볕 속을 일행 칠십여 명은 걷고 있었다.

초조한 불안의 고비를 넘어서 이미 이 상태에 젖어익은 가라앉은 표정들이었다. 행렬엔 막연한 침울함, 살벌함뿐만 아니라 고요함이 흘렀다. 언뜻 봐선 퍽 평화스럽게까지 보였다. 형제는 가운데 모퉁이에 가지런히 서서 걸었다.

이 속에서, 형은 주위에 대한 싸록한 관심과 놀라움과 솔직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펄렁한 야전 잠바에 털럭털럭한 군화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허술한 몰골이 더욱 허술해보였다.

“야하 저 밤나무 봐라, 굉장히 크다, 한 오백 년은 묵었겠다.”

“이젠 낮이 괜 짤라졌구나이….”

“야아 저 까마귀 떼들 봐라.” (...)

그날 밤도 형은 동생 곁에 누워 간밤처럼 쿨쩍쿨쩍 울었다. 울면서 동생에게, 넌 목석이다, 눈물도 없느냐, 집 생각두 안나느냐, 모두 보고 싶지두 않느냐, 넌 이 꼬락서니가 그렇게두 마땅하니, 마땅해, 좋겠다, 장하다, 이놈아… 이렇게 넋두리고 있었다.

간밤에도 울긴 울었지만, 그래도 좀 반가워하는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는데, 이날 밤은 그렇질 않았다. 시종 노여운 듯 부리부리해 있었다. 동생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늘 한가운데로 또 기러기가 울며 지나가고 먼 어느 곳에선 이따금 개 짖는 소리가 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려왔다. 형은 후들짝 놀라며,

“야야 여기두 개가 짖누나이…?”

“….”

“기러기가 또 지나가누나.”

잠시 동안 형은 차분하게 가라앉는 눈치더니 다시 또 쿨쩍쿨쩍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밤이 어지간해서 또 형은 동생의 허리를 쿡 찌르곤, 잠바 포켓에서 웬 밥덩이 한 덩이를 꺼내며 벌쭉 웃었다. 초저녁에 한 덩이씩 얻어먹은 그 수수밥 덩이었다.

어느새 반은 갈라서 억죽억죽 씹으며, “자, 묵어.”

반은 동생에게 내밀었다.

“…?”

동생의 좀 의아한 표정에 형은 벌컥 성을 내듯, 그러나 여전히 귀속말로,

“자, 빨리 받어라, 받어…. 초저녁에 가만히 보니 몇뎅이 남을 것 같드구나, 고 앞에 지키구 섰다가 죽는 시늉을 했어, 그 새끼 있쟎니? 어제 낮에 날 보구 지랄하던 새끼…, 그 새끼가 한뎅이 던제주두나, 먹능 것체럼 허군 슬쩍 넣어 뒀다…. 그 새끼가 기래두 기중 맘이 좀 낫이야.”

이러군 또 벌쭉 웃었다. 비로소 동생도 받아먹기 시작했다. (...)

이튿날 저녁이면, 형은 더욱 신명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 앞에 내밀었다.

“자, 너 다 묵어.”

동생이 반을 가르려 들면,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난, 때때루 아침에두 얻어 먹쟎니? 아침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능거다, 널 안 줄래 안 주는게 아니구….”

(...)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지껄였다.

“너 무슨 일이 생게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말아, 어잉…?”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다운 억양이었다.

“….”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끌어안고 형의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곤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옴쑥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뻐득대? 뻐득대길….”

이호철, 「나상」(1956)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 마치 자폐증과도 같이 모든 의지와 의식을 상실한 수감자를 '무젤매너'라고 불렀다. 그들은 강제 노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땅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유령처럼 서서 배회했다. 그들은 오직 먹을 것에만 반응했다. 한 생존자는 '무젤매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1944년 아우슈비츠에 오래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 포로는 15만 명이 조금 안 되었는데, 그중 수백 명만 생존했다. (...) 가스실, 혹은 극도의 피로로 인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삶은 짧지만 그들의 수는 끝이 없다. '무젤매너', 익사한 자들은 수용소의 중추를 이룬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체되면서도 늘 똑같은, 침묵한 채 행진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익명의 군중, 비인간들이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실제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생명의 신성한 불꽃은 이미 빛을 잃었다. 나는 그들을 살아 있다고 부르기가 망설여진다.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부르기조차 망설여진다.
>
> 얼굴 없는 그들의 존재가 내 기억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악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다면, 나는 내게 친근한 이 이미지를 고를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뼈만 앙상히 남은 한 남자의 이미지. 그의 얼굴과 눈에서는 생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무젤매너'는 수감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자신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수용소의 모든 이가 '무젤매너'의 추한 얼굴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래서 자신의 병과 탈진을 감추고, '무젤매너'의 상태를 감추는 것이 수인들의 가장 절박한 관심사였다.

수용소의 생존자들은 '무젤매너'를 걸어 다니는 시체들이라고 정의한다.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우며, 죽은 것과 산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단계. ㉠ <u>인간을 자아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감각적 감수성과 도덕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u>할 수 있다면, 그들은 최소한의 감각마저 결핍된 생물 기계, 인간의 흔적을 잃어버린 자이다.

※ 평가 주안점 등

0 문학적 감수성과 예술적 창의성

0 핵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력

0 비교/분석 및 가치평가 능력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

0 윤리적 태도에 대한 설명력

K'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항>

[문제] (가)와 (나)를 중심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작 방식을 비교하고, (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그림 창작이 지닌 창의성과 그 한계를 논하시오.(1,000자)

(가)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를 떠올려보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구불구불한 선, 밤하늘의 색은 우리가 보는 실제 밤하늘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는 그림에 나타나는 추상적인 선이나 왜곡된 형태, 비현실적 색 등은 화가가 대상의 순수 감각을 화폭에 구현하고자 한 다양한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대상의 순수 감각이 그림에 구현된다는 것은 그림에 '감각적 닮음'이 생성된다는 의미이다. 감각적 닮음이란, 실제 대상과 그 대상을 구현한 그림이 외형적으로 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유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화가는 자신이 경험했던 감각을 기억하면서 화폭에 담아내는데, 이때 화가는 대상의 생김새나 장면을 기억해서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상에게 느꼈던 감각들을 온몸으로 기억했다가 이를 화폭에 되살려 놓는 것이다. 즉 화가는 관람자가 그 그림을 볼 때 대상의 외형이나 장면이 아닌 대상에 관한 감각 그 자체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들뢰즈는 그림에 감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부한 요소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다양한 이미지가 화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새롭게 감각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존의 그림을 보고 분석하거나 따라 그리면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기존 그림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을 화폭에 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그림과는 다른 대상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특정 화가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여 작품을 그렸다면 이것을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진부한 요소들, 기존의 이미지나 스타일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독창적인 그림 작업은 시작된다.

들뢰즈는 감각을 그림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색의 활용을 제시한다. 화가는 명암을 통해 입체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내며, 색조의 대비나 보색의 대비를 통해 특정 색의 느낌을 더 강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노란색 옆에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색이 부각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초록색 옆에 파란색을 칠하면 그 느낌이 덜해진다. 회화에 색조를 활용하면 명암이 없어도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색조의 차이로 인해 그림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마치 돋을새김을 손으로 만지는 듯한 촉각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욕실 타일에는 명암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색조를 활용하여 벽과 바닥의 타일이 울룩불룩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 화가는 실제 대상의 색과는 다른 색을 활용하여 시각적 감각 외에 촉각적 감각까지 그림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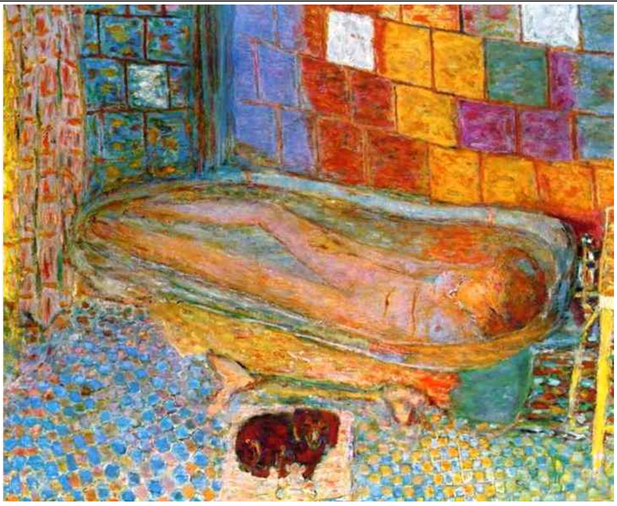

그림 1. 피에르 보나르, <Nude in Bathtub>

이처럼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는 신체적인 감각이 활용되며, 새로운 표현 방식, 색의 조합과 구성 등을 판단하는 복합적인 사고 능력 또한 필요하다. 화가는 자신이 경험한 감각을 기반으로 그림을 창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각과 구현된 그림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이미지나 색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수정해 나간다. 그림을 창작하는 과정에는 자신의 창작 과정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지성적인 활동도 포함되는 것이다.

K·ARTS

(나)

예술의 오랜 역사에서 예술 창작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었으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 창작과 기계 창작의 공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과 인간이 그린 그림을 관람자가 구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림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림제작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스타일 변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원본 이미지의 내용을 유지하고, 그 이미지의 색과 질감을 다른 이미지의 스타일과 합성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합성곱 신경망 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스타일의 신경 알고리듬(algorithm)'은 입력된 이미지에서 스타일과 내용으로 영역을 분리하여 영역별 특징을 추출한 후 이 둘을 다시 결합하여 이미지를 만든다. 예를 들어 거리의 집을 찍은 사진을 내용 이미지로 다루고,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를 스타일 이미지로 다루어 합성하여, 고흐의 그림 스타일로 그려진 집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기술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한 알고리듬도 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입력된 이미지를 모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 신경망과 이를 판별하는 분류자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고흐가 그린 작품을 입력하면 생성자 신경망이 고흐의 작품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한다. 그러면 분류자 신경망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 습득한 고흐 작품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성자 신경망이 만든 이미지가 고흐가 그린 작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분류자 신경망은 고흐가 그린 작품의 특징들을 더욱 잘 파악하여 판별 실력이 늘어날 것이며, 생성자 신경망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 이러한 분류자 신경망을 더욱 잘 속이기 위해 고흐가 그린 작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더 정교하게 생성해낼 것이다. 이 두 신경망의 경쟁이 지속되면 실제 고흐가 그린 작품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가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공지능 그림 창작에 등장한 더 혁신적인 방법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반으로 등장한 창의적 적대 생성망이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경우 분류자 신경망이 입력된 이미지와 유사한 가짜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창의적 적대 생성망은 생성자 신경망에게 창의적 능력을 부여했다. 창의적 적대 생성망에서 분류자 신경망은 입력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분류한 기존 회화 스타일 데이터 25가지 중 어떤 스타일에 속하는지도 분류한다. 생성자 신경망도 가짜 이미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를 분류자 생성망이 기존의 25개 예술 스타일 중 하나로 분류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한다. 기존의 그림 스타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말은 기존에 존재하는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창의적 적대 생성망의 개발자는 이를 스타일 모호성이라 부른다. 두 신경망의 경쟁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은 점차 인간의 예술작품과 유사해지지만 그와 동시에 기존 예술작품의 스타일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때 이 새로운 이미지는 기존의 예술작품과 구분하기 힘든 정도의 예술작품 '같은' 이미지여야 하며, 너무 새로워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이미지가 기존 훈련데이터의 인간 예술작품과 너무 다른 경우 분류자 신경망은 이를 손쉽게 가짜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자 신경망과 생성자 신경망의 경쟁 속에서 창의적 적대 생성망의 최종 결과물로는 [그림 2]의 사례처럼 인간의 추상적인 현대 예술과 유사하면서도 기존의 인간 예술 스타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된다.

K-ARTS

그림 2. 창의적 적대 생성망으로 형성된
작품 이미지

(다)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참신하며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베껴내는 것이 아닌 이전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생산해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창의성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만이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것을 비일상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내 새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 또한 포괄한다.

한편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해 히스(Heath)와 벤츄라(Ventura)는 인지(perception)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인간이 외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고 자기화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모든 과정에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주된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예술가들에 대해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예술 작품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간은 말 그대로 세상을 다르게 인지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독창적인 사물과 생각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가 외부 세계를 독특하게 인지한다는 것은 예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평가 주안점 등

0 타당한 기준에 의한 비교/분석 및 가치평가 능력
0 상기를 토대로 한 논리적 사고 및 평가력
0 핵심개념 분석 및 논리적 설명력을 토대로 한 창의적 예술분석능력

K·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